

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광산구 중점 추진사례^[안]

코로나19 확진환자(16번째, 18번째) 발생 이후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우리구의 중점 대응 사례를 정리 보고 드림.

① 현장중심 문제해결형 재난안전대책본부 개편 운영

- (당초) 2020. 1. 31 감염병 매뉴얼상 재난안전대책본부(8개반)를 가동했으나, 주무부서인 보건소에 상황관리와 관리자원 지원, 의료 및 방역업무 등 많은 임무가 편중됨.

• 문 제 점 : 2월 4일~5일 이틀 연속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, 접촉자 신원 조회, 자가격리 및 1:1 전담관리, 격리자 검체 검사, 민원전화 응대 등 업무 폭증으로 진료업무 등 정상적인 보건소 업무수행이 어렵게 됨

- (개편) 2020. 2. 7부터 확진환자 발생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필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편 운영함.

- 주무부서인 보건소가 골든타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 부서에 임무역할을 분담하고, 최대 218명까지 늘어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필품 등의 신속한 보급·수송을 위해

① 물품보급반, ② 생필품(구호물품)지원반, ③ 수송반을 신규 편성 운영하여 현장맞춤형 대응능력을 제고함.

• (기존) 상황관리반(보건행정과), 긴급생활안정지원반, 긴급통신지원반, 재난관리자원지원반(보건행정과), 의료및방역지원반(보건행정과), 재난현장환경정비반, 자원봉사지원반, 재난수습홍보반 (8개반)

• (변경) 상황관리반(국 서무과 등), 홍보반, 물품보급반(회계과 등), 생필품지원반(복지정책과 등), 수송반(교통행정과 등), 의료폐기물처리반(청소행정과 등), 환자방역대책반(보건행정과 등), 인력지원반(행정지원과 등) →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8개반으로 재편성 후 탄력적 대응

- 구청장 주재 일일보고 및 현장점검 강화 → 현장 대처 능력 제고

※ 구청장 주재 회의 13회, 지시사항 25건, 현장활동(방문점검, 방역 등) 15회

(예/2.10 지시사항) 우리구 공무원(직원) 감염 시, 대비한 기관소산 등 대응방안 마련 지시



② 유연비어·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정보전달 체계 확립

- 정보전달체계를 일원화(홍보실)하여 우리구의 코로나-19 대응상황을 대응뉴스로 만들어 정확한 사실만 신속히 전달하고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 궁금증 불안감 해소에 기여함
 - (대응뉴스) 일일 오전/오후 2회 자체 발행(총 27호)
 - (SNS 홍보) 페이스북 30회, 블로그 19회, 카카오톡 13회, 카카오톡 채널 8회, 인스타그램 15회, 트위터 22회 등
 - 동(부서)별 기관·사회단체 등의 단체톡 활용 실시간 정보 전달 체계 구축

③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, 보건소 진료 중단 결정

- (진료중단 2 7~) 확진환자(2명) 발생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광범위한 접촉자(350명) 파악·관리에 많은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진료 업무를 중단하고 보건소 내 모든 의료전문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신속히 대응함
 - ※ 역학조사, 접촉자 신원조회, 검체 검사, 격리자 관리 등

④ 고뇌에 찬 어린이집, 노인복지시설 등 휴원(휴관) 신속 결정

- 건강취약계층 대상시설(어린이집, 복지관, 경로당 등 916개소)에 대해 운영주체와 숙의를 통해 휴원·휴관(216까지)을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 확산 예방에 기여함
 - ※ 단, 맞벌이 가정 등 희망시 자녀돌봄 지속, 독거노인 등에 대한 급식 대체용 도시락 전달

⑤ 동(洞)현장의견 실시간 반영을 위한 쌍방향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

- 범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일일상황점검회의 개최 시, 각 동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현장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응환경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.
- 각 동에 웹캠과 헤드셋을 보급하고 나라e음 PC영상회의를 활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 구청과 각 동 간 쌍방향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구축함.
- 매일 각 동의 동장들이 구청까지 오지 않고서도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실시간으로 참석하여 엄중한 현 상황을 직원들과 직시함으로써, 신속한 의사전달과 더불어 정보의 곡해를 방지함.
 - ※ 참석자 : 21개 동장 / 부서 및 동 직원들 영상회의 시청(회당 약 200명)

⑥ 청정광산 회복을 위한 시민참여형 민관 일제 합동방역 실시

- 2.10(월) ~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대와 협업을 통해 위기를 전회위복의 기회로 청정광산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인 시민참여형 민관 합동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함

※ 연인원 : 6천여명(공무원 1,356 / 시민 4,560) 추진장소 2,995개소

- (지역사회 방역 종합대책) 산업경제시설과 동별 취약지역,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별로 7개 분야(공공+민간영역)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방역 진행



⑦ ‘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’ 자가(셀프) 방역용품 무료 대여 서비스

- 코로나19 확산 불안감으로 공공방역의 힘이 못 미치는 내 집, 우리 아파트, 상가 등의 실내 방역을 원하는 시민은 많으나, 스스로 방역을 하고 싶어도 가정 내에서 소독물품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임
- (운남동) 살균소독제 나눔과 연계한 「셀프방역 소독용품 패키지(압축분무기 등) 무료 대여 서비스」를 실시하여 가정·상가 등 일상 속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체 소독 문화 확산에 노력함

※ 동 청사 외부에 400L 소독약품 저장탱크 설치 : 2. 11.(화) * 1일 평균: 약 70L 수령

- 운영기간 : 2020. 2. 20.(목) ~ 상황 종료 시까지 지속 운영
- 대 상 : 운남동 주민 누구나 (운남동 사업장 종사자 포함)
- 대여방법 : 2일간 대여(주말, 공휴일 제외) → 신분확인 후 대여대장 등록, 자체 소독 후 반납
- 대여물품 : 압축 분무기(총 50개 보유) + 소독 패키지 무료 제공
 - 분무기 : 실내용(1L 42개), 실외용(5L 4개, 8L 3개, 20L 1개)
 - 패키지 구성 : 살균소독제, 라텍스 장갑, 마른 헝겊, 소독방법 홍보물 등



대여 장소



소독용품 패키지

8 중국유학생도 우리 학생! 외국인도 우리 시민! 방역소독 지원 및 방역체계 구축

-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주민을 위해 9개국 15명의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이 다국어로 나라별 SNS 홍보를 실시하고, 외국인 밀집지역에 집중 방역소독과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, 육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, 의심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토록 안내함

※ (육교현수막) 3개 국어 / 4개소, (홍보전단지) 6개 국어 / 18,500부



- 개강을 앞두고 중국유학생 입국에 따라 대학교별 대응상황을 점검코자 먼저, 구청장께서 호남대 총장실을 방문하여 대응상황을 함께 논의하고, 예방용 마스크와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

9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! 청정·안심상가, 공직자 외식데이 추진

- (청정상가, 안심상가 조성) 상인회가 매일 소독을 실시한 업소에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

※ 선운지구 '청정상가', 하남2지구 '안심상가' 스티커 부착

- (공직자 외식데이) 2.17부터 3.13까지 구내식당 운영 규모를 줄이고, 1주일에 5일을 국(부서)별로 1회씩 공직자들이 돌아가며 '행복더하기 외식데이'를 통해 침체된 상가 옹원과 지역경제 활력에 힘을 보탬



10 격리시설/자가격리자 생활(의료)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

- (특별상황실 운영) 2. 4~ 5. 확진자 발생 이후 보건소 등 유관 부서와 민간폐기물 처리업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폐기물 처리 도모
 - 2. 8.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격리시설 매일 2차례 소독 실시
 - (사설자가격리자) 112세대 종량제봉투 3,064매 / 의료폐기물봉투 750매 배포

11 격리자의 인내와 공직자·봉사자의 헌신 속에 전원무탈 격리해제

- (2.20) 격리시설(21세기병원, 소방학교 생활관)에서 지내던 시민(60명)들은 무탈하게 가정과 병원으로 복귀하고, 소방학교 격리시설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던 우리구 보건소 직원도 사무실로 복귀했으며, 자가격리자(218명) 1:1 전담 매칭 직원들(연인원 1,479명)도 매일 철저한 생활수칙 이행 모니터링과 생필품(부식품, 구호물품 등)지원 및 응원(꽃편지 전달 등)으로 자가격리자 모두가 격리해제 되었음

12 시민의 손 끝으로 다함께 위기 극복 중

- 광주공항과 송정역에 설치된 열감지기 운영에 지금까지 34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, 광산구자원봉사센터 활동가들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직접 재봉틀을 돌려 하루평균 300개의 수제 마스크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음.
- 공공방역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시한 시민참여형 지역 자율방역 활동에 4,560여명의 시민이 동참함에 따라 5.18 광주공동체의 힘을 보여줌
- 21개동행정복지센터에 '소독제나눔 물탱크'를 설치하여, 자택이나 사무실, 상가 등을 방역하고 싶어하는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자가(셀프)방역 체계 구축에 기여함 ※ 4,416명/13,873리터(2.17현재)

13 방심은 금물! 2단계 전략, 선별진료소 확대 등 지역사회 방어망 구축

- 대구시 등 확진환자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.
-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증상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유지가 필요함.
 - ① (선별진료소 확대) 기존 2개소에서 5개소로 권역별 확대 설치 강구
 - ② (지역사회 전파시) 보건소 인력 부족시 대비 → 민간경력자 지원단(인재풀) 구성 필요
 - ③ (시민들의 자발적 격리 참여 권고) 만약의 지역공동체 붕괴 방지를 위해 감기, 독감, 폐렴,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격리 참여가 절실함